pride GyeongBuk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7. 4. 26.(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❶ WC300기업, 성장+일자리 이끄는 히든챔피언으로 발돋움 기대! 2017년 World Class 300 기업에 ㈜금창 등 도내 업체 3개사 선정	기업노사 지원과	
❷ 해양수산부 '2018년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 포항 호미곶권역, 경주 노동리 마을특화개발	해양수산 정책관	사진별첨
❸ 도내 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과 보존·활용 위해 노력 경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道문화재 지정(4건) 및 지정대상 선정(7건)	문화유산과	사진별첨
❹ 저출산 극복! 시민사회·종교계·기업이 발 벗고 나섰다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 출범, 결혼출산가족 친화적 캠페인 등 실시	미래전략 기획단	사진별첨
❺ 경북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로 행복을 나눠 드립니다 문화소외지역에 직접 방문하는 '2017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문화융성 사업단	사진별첨
❻ 경북도청노동조합, 나눔문화 확산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나간다 노조사무실내 '사랑 나눔가게' 운영, 수익금 전액 이웃돕기로 사용	자치행정과	사진별첨
❼ 경북 119인명구조견 전국 최강 실력 뽐내~!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 단체전 종합1위, 개인전 3위 입상	소방본부	사진별첨
❽ 경북산림과학박물관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아 관람객 물결로 문전성시	산림자원 개발원	사진별첨
❾ 전국 최초 개발한 종자 생산 신기술 교육 문전성시.. 실무를 겸비한 농어업 핵심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부상	수산자원 연구소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일자리민생본부 기업노사지원과		
		작성자	과 장	강 돈 영	
			담 당	김오종	주무관 이성희
		연 락 처	054-880-2672		

WC300기업, 성장+일자리 이끄는 히든챔피언으로 발돋움 기대!

- 2017년 World Class 300 기업에 ㈜금창 등 도내 업체 3개사 선정 -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지역 중소기업인 ㈜금창 등 3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300'은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2차로 나누어 총 7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1차에서 36개사를 선정했다.

※ 선정 요건 : ① 매출액 4백억~1조원 미만 ②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③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이번에 선정된 지역 기업은 ▲ ㈜금창(대표 송재열), ▲ ㈜피엔티(대표 김준섭), ▲ ㈜탑엔지니어링(대표 김원남, 류도현) 이다.

<월드클래스300 선정 경북 3개 기업현황>

기 업 명	소재지	주력제품	5년평균 매출증가율	수출 비중	고용 인원	비 고
㈜금창	영천	힌지, 도어체커, 프레임	24%	48.9%	306명	힌지 국내1위, 세계5위
㈜탑엔지니어링	구미	Dispenser	3.9%	46.4%	319명	Glass Cutting시스템, LCD Dispenser 세계일류상품선정
㈜피엔티	구미	이차전지 롤투롤설비	6.5%	60.5%	141명	롤투롤 설비기술 국내1위

특히, 자동차부품제조 기업인 ㈜금창은 경북Pride상품기업에서 시작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거쳐 WC 300으로 이어지는 경북형 성장사다리 구축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동안 R&D 및 글로벌마케팅 사업을 꾸준히 지원받아 오늘의 쾌거를 이루었다.

월드클래스 300으로 선정된 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지원기관, 민간은행 등 19개 기관이 운영하는 전용 및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최대 5년간 75억원 이내의 전용 R&D사업과 최대 5년간 3억 7천여만원 이내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이 있고, 금융지원 우대와 금융 관련 컨설팅서비스, 지식재산권, 국제조세, 물류, 해외수주 등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우수 기업들이 WC 300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컨설팅 지원을 받은 5개사가 2차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번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경제성장, 수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기대한다” 며,

“이들 기업이 세계 속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기관들과 함께 최상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김 두 한	
			사무관	오동희	주무관	서영주
		연 락 처	054-880-4162		

해양수산부 '2018년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

- 포항 호미곶권역, 경주 노동리 마을특화개발 -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인 '2018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포항 호미곶권역 권역단위 거점개발'과 '경주 감포읍 노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최종 선정은 경북도와 포항·경주시가 사업 발굴 단계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관 협력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포항 호미곶권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미(美)항이 상생하는 행복한 호미곶면'이라는 비전으로, ▲ 어촌주민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 호미해파랑길 정비, ▲ 포켓공원 쉼터 조성, ▲ 구룡소 오토캠핑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해양자원의 보고, 미래가치 창조의 호미곶면'을 만들 계획이다.

'경주 감포읍 노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젊음과 장수 노동마을'이라는 비전으로, ▲ 마을안길조성, ▲ 특산품 저장창고 및 가공시설, ▲ 폐광체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의 6차산업을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젊어지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한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이번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주민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2019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 발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계획도)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작 성 자	과 장	이 규 일	
			사무관	김부홍	주무관	류문규
		연 락 처	054-880-3172		

도내 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과 보존·활용 위해 노력

- 경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道문화재 지정(4건) 및 지정대상 선정(7건) -

경상북도는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제1차 회의)를 열어 ‘안동 임계계회도’을 비롯한 4건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4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 ‘안동 임계계회도’는 안동 지역에 사는 임자년(1552)과 계축년(1553)에 출생한 양반 11명이 모여 계(契)를 구성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원래 11점을 제작해 각자가 나누어 가졌는데 현재 5점이 전해져오고 있다.

17세기 안동지역 문중 소장 계회도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으로서 회화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및 그들이 지은 시가 함께 기재돼 있어 문화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 ‘김한계 조사문서’는 김한계가 1448년(세종 30) 승문원 부교리(承文院 副校理)에 임명될 당시 이조로부터 받은 것과 1449년(세종 31) 사간원 우정언(司諫院 右正言)에 임명될 당시 이조로부터 받은 것으로 일종의 임명장이다.

조사문서(朝謝文書)는 새로 임명된 관직자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의 신원조사 결과에 의거해 이조나 병조에서 관직자에게 발급해 준 문서인데, ‘홍무례제(洪武禮制)’의 공문서식에 의거한 인사 문서로서 조선 초기에 시행되다가 폐기된 한시적인 공문서였다.

고려와 조선의 공문서 양식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로 현존하는 조사문서 중 비교적 연대가 이른 희소적 가치가 있다.

▲ ‘청도 운문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은 운문사 대웅보전(사찰 내 명칭은 비로전) 수미단 위에 안치된 소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양손을 가슴까지 들어 올린 후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 쥐는 지권인을 취하고 다리는 반가좌(半跏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인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른발을 왼발의 앞에 놓아 반가좌의 자세를 취했는데 이러한 자세는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양식적·도상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15세기와 16세기 초의 불보살상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계승하고 있으나 장방형의 얼굴과 평면적인 조형은 조선 후기 불상의 선구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1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180㎝에 달하는 중형의 비로자나불상으로서 희소성이 있다.

▲ ‘예천 오천서당록’은 예천 내성천의 오천(浯川)을 중심으로 20여 문중의 유림이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오천서당의 계안(契案) 혹은 서당 교육이나 운영에 관여한 사족들의 명단으로 추정된다.

총 3책으로 제1책은 인조 5년(1627)에서 순조 17년(1817)까지 추록된 명부이고, 제2책은 헌종 9년(1843) 추록된 명부로서 도합 2,313명이 수록돼 있다. 명단에는 대과 급제자 15명과 소과 합격자 41명 등 모두 60명에 달하는 입격자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제3책에는 서당운영의 기반이 되는 전답, 경제력을 알 수 있는 자료, 임야를 둘러싼 소송 등 서당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수록돼 있다.

기존의 서당관련 사료에서 발견할 수 없는 풍부한 역사적 사실이 포함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당은 서원과는 달리 설립, 취지, 운영,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 이 책에는 상당량의 자료가 실려 있어 예천 서당교육사와 향토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의 문화재는 총 2,041점(국가지정 700, 도지정 1,341)이 됐다.

아울러,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 경주 송선리 마애불, ▲ 경주 알천제방수개기, ▲ 상주 북장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 상주 북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 문경 김룡사 응진전 석조십육나한좌상 일괄, ▲ 문경 김룡사 석불입상, ▲ 청도 대비사 석조석가불좌상 등 7건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7건의 문화유산은 지정예고 절차를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국 최고·최다의 문화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최상의 보존·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킴으로써 예산절감과 동시에 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 고 했다.

붙임 참고자료(선정내역), 사진자료

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지정대상 선정내역

□ 도지정문화재 지정내역 : 4건(유형문화재)

일련번호	지정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1	유 형 문화재	501	안동 임계계회도 (安東 壬癸契會圖)	5점	안동권씨 복야공파 옥봉문중 외 4개 문중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등 보관)
2	유 형 문화재	502	김한계 조사문서 (金漢啓 朝謝文書)	2매	의성김씨 목사공파 천연종중	청송군 진보면 샘재길 42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3	유 형 문화재	503	청도 운문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 (淸道 雲門寺 塑造毘盧遮那佛坐像)	1구	운문사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4	유 형 문화재	504	예천 오천서당록 (醴泉 梧川書堂錄)	3책	오천서당 영 모 회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54-2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 도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선정내역 : 7건(유형문화재 6, 문화재자료 1)

일련번호	종 별	문 화 재 명	수량	소유자	소 재 지
1	유 형 문화재	경주 송선리 마애불 (慶州 松仙里 磨崖佛)	1구	국 유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44
2	유 형 문화재	경주 알천제방수개기 (慶州 閼川堤防修改記)	1기	경주시	경주시 동천동 988
3	유 형 문화재	상주 북장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尙州 北長寺 極樂寶殿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3구	북장사	상주시 내서면 북장1길 317
4	유 형 문화재	상주 북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尙州 北長寺 冥府殿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24구	북장사	상주시 내서면 북장1길 317
5	유 형 문화재	문경 김룡사 응진전 석조십육나한좌상 일괄 (聞慶 金龍寺 應眞殿 石造十六羅漢坐像 一括)	20구	김룡사	문경시 산북면 김용길 372
6	문화재 자 료	문경 김룡사 석불입상 (聞慶 金龍寺 石佛立像)	1구	김룡사	문경시 산북면 김용길 372
7	유 형 문화재	청도 대비사 석조석가불좌상 (淸道 大悲寺 石造釋迦佛坐像)	1구	대비사	청도군 금천면 박곡길 590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성자	과 장	김 호 섭	
			사무관	김걸동	주무관 장태희
		연 락 처	054-880-4525		

저출산 극복! 시민사회·종교계·기업이 발 벗고 나섰다

-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 출범, 결혼·출산·가족 친화적 캠페인 등 실시 -

경상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실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계·종교계·기업·경제계·교육계·보육계·여성계·언론계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6일 오전 11시 대구청사 회의실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결혼·출산·가족 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올해 일·가정 양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육아, 임산부 배려, 남성의 육아참여,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등을 주제로 공동캠페인과 간담회·포럼 등을 실시하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공감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참여 단체별 역할을 정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의지를 모았다.

▲ 경제계와 참여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실천 및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 종교계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결혼·출산 등 가족친화 교육 활성화, ▲ 시민사회계는 양성평등 육아문화와 행복한 결혼·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호섭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제와 계획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지자체·종교계·기업·시민사회 등 각 사회주체들이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통과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결혼·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융성사업단		
		작 성 자	단 장	이 성 해	
			사무관	서태원	주무관	도은영
		연 락 처	054-880-3142		

경북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로 행복을 나눠 드립니다

- 문화소외지역에 직접 방문하는 '2017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
- 어르신 및 청소년에게 희망과 행복 나눔, 문화격차해소 -

경상북도는 '2017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23개 전 시·군에 1회 정도 열어,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수준 있는 공연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향유층은 도내 공연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어르신 등이며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는 23회 공연에 4,220명이 관람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 받아,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1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수혜자의 호응이 높은 시책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공연은 연말까지 시·군별 1회씩 동서양 현악기 연주, 밴드보컬, 무용, 뮤지컬 등 수혜 대상을 고려해 1~2시간 정도 펼쳐지며 작은 무대지만 고품격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할매할배의 날'에 공연을 펼쳐 만족도가 배가되도록 했다.

서 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민생문화 활성화를 위해 직접 찾아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저변을 확대해 '문화로 함께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 성 자	과 장	추 교 훈	
			사무관	김병곤	주무관	황진대
		연 락 처	054-880-2854		

경북도청노동조합, 나눔문화 확산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나간다

- 노조사무실내 '사랑 나눔가게' 운영, 수익금 전액 이웃돕기로 사용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우병윤 경제부지사, 고우현 도의회 부의장 등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사무실내 별도 공간에 '사랑 나눔가게'를 마련해 현판식을 가지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노조가 직접 운영하게 될 '사랑 나눔가게'는 도청 직원들로부터 개인이 보관중인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물건을 기증받은 후 다시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수익금 전액은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노조에서는 지난 4월초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물건을 기증받고 있으며 옷, 건강기구, 주방용품, 책 등 나눔가게는 벌써부터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한편, 노조에서는 나눔가게 활성화를 위해 연말 기증왕 선발, 자원봉사 인센티브 부여 등 더 많은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6일 청년기부왕 박철상씨가 도청에서 기부철학 강연후 노조로부터 기부 홍보대사로 위촉받기도 해 이번 사랑 나눔가게는 더욱 의미를 띠고 있다.

손현규 노조위원장은 "자원재활용과 이웃사랑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뿐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소방본부 1119특수구조단		
		작 성 자	단 장	조 유 현	
			담 당	김두형 주무관	임대성
		연 락 처	054-880-6510		

경북 119인명구조견 전국 최강 실력 뽐내~!

-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 단체전 종합1위, 개인전 3위 입상 -
- 구조견 수색능력 평가에서 민국, 제우스, 승리 최고 평가 받아 -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속 인명구조견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단체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인명구조견의 훈련기술과 정보교류를 통해 출동현장 운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열리는 대회로 전국 인명구조견과 핸들러의 역량을 평가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이다.

대회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명구조견 및 핸들러 26개 팀과 한국인명구조견협회 소속 15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뤘다.

인명구조견 수색구조능력 평가는 흔들다리, 시소, 사다리, 터널, 허들, A판벽 6가지의 장애물을 통과한 후 구보로 산악수색지역으로 이동해 요구조자 2명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단체전에 출전한 인명구조견 민국(세퍼트), 제우스(레트리버), 승리(마리노이즈)가 다 같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 1위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아울러, 인명구조견 수색구조능력 평가 개인전에 출전한 민국(세퍼트)이 3위에 입상해 경북소방본부 119인명구조견이 전국 최강임을 입증했다.

한편, 경북 소방본부 인명구조견센터는 2008년 11월 1일 개소해 현재까지 350여회의 구조현장에 출동해 31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우재봉 경상북도소방본부장은 “인명구조견이 100%의 능력을 발휘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조련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		
		작 성 자	원 장	김 완 식	
			과 장	박찬길	담 당	권경동
		연 락 처	054-840-8220		

경북산림과학박물관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아 관람객 물결로 문전성시 -
- 봄맞이 야생화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은 산과 나무 그리고 산림사료의 체계적 전시를 통해 잊혀져 가는 산림문화의 전통을 복원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5월 개관한 경북 유일의 산림테마 전문 박물관이다.

산림과학박물관은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해 인근 도산서원, 국학진흥원, 육사문학관, 청량산 도립공원과 인접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역사체험과 자연생태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매년 봄철 소풍철인 4~5월 초·중등 학생을 비롯한 많은 단체 관람객들이 찾고 있어 산림문화체험과 현장교육의 장으로의 역할 하는 등 전국 최고의 산림테마박물관으로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관람객은 2만여명이며, 4월중(1일~16일) 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이 5천여명으로 봄철에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다.

4월 들어 박물관을 찾은 단체 관람객은 안동송현초등학교, 영주가흥초등학교, 예천감천중고등학교 등으로 경북 곳곳의 학교와 단체에서 관람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말이면 가족 동반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4년 10월 27일부터 관람료가 무료화됨에 따라 관람객은 2014년 42,924명에서 2016년 81,606명으로 2배가량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산림박물관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봄맞이 특별기획전의 일환으로 야생화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전시회는 ‘봄꽃의 향연, 자연속의 풍경을 야생화에 담아’라는 주제로 자연의 이미지를 그려낸 야생화 작품 100여점을 전시해, 4~5월 황금연휴에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완식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은 “다가오는 5월 연휴와 봄맞이 가족여행코스로 산림과학박물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간 중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26.(수)】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작성자	소 장	문 성 준	
			담 당	임후순	주무관 권상걸
		연 락 처	054-830-8821		

전국 최초 개발한 종자 생산 신기술 교육 문전성시..

- 실무를 겸비한 농어업 핵심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부상 -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농어가 및 창업희망자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성공한 '미꾸리 1년산 상용화 시험연구 성과'와 올해 초 지자체 최초로 성공한 '큰징거미새우 고밀도 종자 생산 기술' 전수를 위해 '2017년 상반기 내수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꾸리 1년산 상용화 시험연구 성과에 따른 '논 생태양식 평가회'를 개최한 후 기술 지도를 희망하는 요구와 '큰징거미새우 고밀도 종자 생산 기술' 성공에 따른 방송3사와 YTN 등 뉴스에 방송된 이후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특히, 큰징거미새우는 양식공간 확보 문제와 심한 공식(서로 잡아먹는 현상)문제로 인해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었다.

이번 교육은 센터의 새로운 종자 생산 기술을 참석자가 직접 실습(채란·채정)하고 시설을 견학하는 자리로, 도내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연구사들도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26일, 1일차 교육에서는 ▲ 내수면 어업현황과 정책방향 및 생태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큰징거미새우를 활용한 논 생태양식, ▲ 큰징거미새우 종자생산과 양식방법, ▲ 센터 자체 큰징거미새우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소개했다.

27일, 2일차 교육에서는 미꾸리 인공 종자생산 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양식 이론 및 미꾸리 생태습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이 직접 미꾸리 호르몬 주사를 놓아 보는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를 병행하는 교육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는 하반기에도 내수면 가치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내수면 6차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지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한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농어업 6차산업화를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용성 높은 교육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교육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고 했다.

붙임 교육계획, 사진자료

´17년 상반기 『내수면 전문인력』 양성 계획

❖ 내수면 6차산업 대비 실용화된 교육으로 농어촌 고령화 대비 및 新소득 경쟁력 확보로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목표

-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미래 내수면전문가 집중 육성
-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개요

- 시　　기
  - 1차 : ´17. 4. 26(수) 13:30 ~ 17:30 **(큰징거미새우 교육)**
  - 2차 : ´17. 4. 27(목) 10:00 ~ 15:50 **(미꾸리 교육)**
- 대　　상 : 180명 정도(1차 : 120명, 2차 : 60명) - **농어가 및 창업희망자 등**
  ※´16년 120명 참석(상·하반기)
- 장　　소 : (1차)의성군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2차)토속센터 회의실
- 방　　법 : 집합교육(종자생산 기술, 현장실습 병행)
- 주요내용
  - ´17년도 「道 내수면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설명(道 해양수산정책관실)
  - **큰징거미새우·미꾸리 인공종묘생산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 性 성숙 호르몬 처리, 수정(採卵·採精) 기술, 자치어 사육관리 등
  - **센터 내 사육시설견학 등 현장 교육**
    - 시험포 조성 방법, ´16년 사육결과 설명, 현장 토론 및 의견청취 등

※ 교육 종료 후, 종합토론 및 교육평가 설문조사 시행

교육일정 (1차)

시간 계획	소요 시간	교 육 내 용	장 소	강 사 (담 당)
13:30～14:00	‘30	○ 교육등록	교육장 (의성친환경센터)	권상걸 주무관
14:00～14:05	‘05	○ 인사 및 센터소개	〃	소 장
14:05～14:30	‘25	○ ´17년도 내수면어업 정책방향	〃	김도연 주무관 (경북도청)
14:40～15:40	‘60	○ 내수면 생태양식 기술개발(큰징거미새우)	〃	김봉래 박사
15:50～16:50	‘60	○ 큰징거미새우 자체 사육현황 설명(기술 등)	〃	박정호 주무관
17:00～17:20	‘20	○ 센터 내 사육시설견학 등 현장교육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임후순 팀장
17:20～17:30	‘10	○종합토론 및 교육평가, 설문조사(종료) **※ 2017년 하반기 내수면인력양성 교육계획 설명**	교육장 (의성친환경센터)	소 장

교육일정 (2차)

시간 계획	소요 시간	교 육 내 용	장 소	강 사 (담 당)
10:00～10:30	‘30	○ 교육등록	회의실	권상걸 주무관
10:30～10:35	‘05	○ 인사 및 센터소개	〃	소 장
10:35～11:00	‘25	○ ´17년도 내수면어업 정책방향	〃	김도연 주무관 (경북도청)
11:10～12:00	‘50	○ 양식 이론 및 미꾸리 생태습성 교육 실시	〃	박재민 연구사
13:10～15:30	‘140	○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시설 견학 ○ 미꾸리 인공종자생산 현장 실습	시험포 시험연구동	임후순 팀장
15:40～15:50	‘10	○종합토론 및 교육평가, 설문조사(종료) **※ 2017년 하반기 내수면인력양성 교육계획 설명**	회의실	소 장